4. 성경시대 때 부터 선교사 멤버케어는? What Has Missionary Member Care Been Like Since Bible Times?

짧고 간단한 요약 Short & Simple Summary

기독교가 전파되어온 2 천년 동안 선교사 멤버케어를 받았다는 정보가 거의 없다. 선교사들은 본국으로 부터 몇 달 걸리는 거리 혹은 몇 주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의사소통도 성공적인 경우 그 정도 시간이 걸렸기에 멤버케어는 현지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8~19 세기에 멤버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20 세기 중반까지 멤버케어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20 세기 ¼ 하반기에도 큰 관심은 보여지지 않았다. 이 과에서 설명할 주제들을 다음에 적어보았다.

초기 개신교 선교
최근 개신교 선교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만일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출처로의 링크를 원한다면 계속 읽으십시오.

신약성경 시대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로마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이 전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포기했다”(마 19:12). 이같이 전 세계를 다니는 가톨릭 선교사의 대다수는 남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미혼을 선택해왔다. 그러므로 결혼이나 가족문제도 없었고, 여러 문화권 사이에서 자라나는 제 3 문화 자녀들도 없었다.

초기 개신교 선교 Early Protestant Missions

16 세기 유럽의 개신교 종교개혁은 타대륙에 있는 다른 민족 그룹으로 나아가는 것 보다는 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목표로 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다른 신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했다.

18 세기에 유럽 개신교와 식민지 미국에서 일어난 제 1 차 영적 대각성 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은 주로 다른 스타일의 예배와 신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목표 대상이었다. 그 운동은 의식과 의례보다는 개인적 헌신과 도덕성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식민지 국가의 노예 일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일부 개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개인 및 가족들은 그 시작부터 멤버케어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여기에 몇 가지 예들이 있다.

- **데이비드 브레너드(David Brainerd)**.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18 세기 뉴저지 지역의 미국 원주민 선교사가 된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가장 외롭고 우울한 사막에서 산다. 내 영혼은 내 삶으로 지쳤버렸다. 나는 죽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그에게 지정된 베테랑 선교사 커플과 일하는 대신 혼자 일하는 것을 택했다).
- **도로시아 펠릭스 캐리(Dorothy & Felix Carey)**. 영국에서 태어나 18 세기 말 인도인들을 위한 선교사였던 도로시아 펠릭스 캐리는 종종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부인과 아들이었다. 이 책 1 장에 따르면, 도로시아는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고 펠릭스는 선교사로서 잠깐 섬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영국의 선교단체로부터 도움은 없었고, 윌리엄은 사역지에서 도움을 찾았다).
- **J. 허드슨 테일러(J. Hudson Taylor)**. 영국에서 태어난 중국 선교사 J.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사역 20 년 후 37 세에 이같이 말했다. “내겐 희망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 그는 “매일, 거의 매 순간, 실패와 죄의식이 나를 짓눌렀다”고 고민할 정도의 강력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그는 끔찍한 절망 속에 “그의 삶을 차라리 끝내고 싶은 끔찍한 유혹”을 받았다. “그의 아내 마리아도 허드슨과 자살 사이에 서 있었다” (J. C. 펠록, 1962, 허드슨 테일러와 마리아, New York, McGraw-Hill, 195-196 쪽).
-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19 세기 버마로 떠난 미국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은 그의 아내와 딸이 죽었을 때, 애통이 변하여 정신 장애가 되어버렸다. 고립 속에 그가 남았던 정글에서—죽음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한 채—그의 무덤을 팠다.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미지의 존재(the Great Unknown)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동료 선교사들이 그를 보살폈다).
- **메리 리빙스턴(Mary Livingston)**. 그녀와 그의 자녀들이 19 세기 아프리카로 간 스코틀랜드 선교사 [그녀의 남편인] 데이빗 리빙스턴과 함께 지낼 수 없었기에, 데이빗은 그들을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거기서 메리는 그녀와 아이들이 지낼 값 싼 숙박을 구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 데이빗이 5 년 후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메리와 아이들이 바로 그 곳에 있었음에도, 그들의 선교단체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8 세기 및 19 세기에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로 갔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거의 선교사 케어를 받지 못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주소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test/mc-counting-the-cost-book->

에서 룯 터커와 레슬리 앤드류스의 <선교사 케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가를 계산하라>는 책의 제 1 부, 2 장의 “선교사 케어에 관한 역사적인 노트”를 보라.

최근 기독교 선교 Recent Protestant Missions

20 세기 전반기 멤버케어는 18 세기, 19 세기 때와 유사했다. 멤버케어가 제공된 경우는 주로 현장의 가족 구성원이나 거기에 함께한 동료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선교사들이라면 부르심에 평생 헌신해야하고, 영적 거인이어야 하고, 어떤 일에도 맞서서 일어서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어

떤 선교사들은 자신의 관(coffin)에 들어갈 물품들을 갖고 여행을 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그런 것을 히브리서 11 장에 기록되었듯이 “외로운 나그네” 혹은 “믿음의 영웅”이라 불러왔다.

멤버케어는 주로 선교사들을 현장에 정착하게 돕고, 본국에서의 그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다. 사역을 준비하게 하거나, 개인적 필요를 채우도록 돕거나, 혹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예정된 사역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거나 다음 기간에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것으로 여겨졌다.

한 가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자녀 교육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 중 일부가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제 3 문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의 예를 들어 보겠다.

-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 케냐(Rift Valley Academy, Kenya).**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는 1906 년에 수업을 시작했고, 미국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가 1909 년에 캠퍼스 내 한 건물에 초석을 놓았다. 지금은 아프리카 20 개 국가에 있고 80 개 선교단체에서 헌신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http://www.rva.org/>.
- **달라트 국제 학교, 말레이시아(Dalat International School, Malaysia).** 달라트 국제학교는 1920 년 베트남에서 크리스찬 & 선교 연합 교단(Christian & Mission Alliance) 선교사들을 위한 학교로 설립되었다. 전쟁상황으로 인해 몇 번 학교를 옮겼는데,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옮겼다. 달라트 국제학교는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삶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dalat.org/>
- **모리슨 아카데미, 타이완(Morrison Academy, Taiwan).** 모리슨 아카데미에서의 첫 수업은 1953 년 가을 35 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수업료는 한달에 10 불이었다. 4 개의 선교단체가 학교를 위한 책임을 맡았고, 나라 전역에 세 개의 캠퍼스로 불어났다. <http://www.mca.org.tw/>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선교사 멤버케어는 20 세기 중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조차도 목사들은 해당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1 세기 때 스테반, 디도, 디모데, 마가처럼 종종 목회적으로 돌보아주었다. 이런 목회적 돌봄은 몇몇 지역교회와 일부 교단과 선교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어떤 선교단체는 정규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선교사들을 방문하여 섬기는 풀타임 “국제 목사”를 두었다. 이런 목회적 돌봄은 바나바 인터내셔널에 의해 열린 목사 선교사 학회(이하 PTM)에서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매해 열리는 PTM 의 모토는 “멤버케어 일군들을 격려하기”이다 <http://ptm.barnabas.org/>.

그동안 아주 작은 수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선교사 멤버케어에 참여했다. 한편으로는 교회와 선교사들 간에, 다른 한 편으로는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에 종종 상호 불신이 있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예외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1952 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크리스천 심리학자 헨리 브란트로서이다. 어느 날, R.E. 톰슨은 새로 생긴 단체에서 헨리에게 무보수로 선교사 지원자들을 상담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 달도 안되어 헨리는 지금 선교훈련 인터내셔널(<http://www.mti.org/>)이 된 선교사 인턴십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는 전담자가 되었다. 헨리는 자국내에서는 선교사들을 훈련시켰고, 해외에서는 선교사들을 돌보았다. 그는 자비를 들여 극한의 상황에 있거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셀 수 없는 남녀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다. 그는 1956 년 아마존에서 있었던 아우카 대학살(the Auca massacre) 후에 선교사의 아내들을 만나 상담한 첫 번째 심리학자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를 보라. <http://biblicalcounselingoutreach.com/henry-brandt-biography/index.shtml>.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예외가 클라이드 나라모어이다. 1954년에 나라모어 박사 부부는 살기위한 심리학(Psychology for Living)이라는 라디오 방송과 월간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1958년에 나라모어 크리스천재단(www.nfliving.org)를 설립하고 아직까지도 살기위한 심리학(Psychology for Living)을 발간하고 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에서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와 그 자녀들을 관리하였다.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en.wikipedia.org/wiki/Clyde_M._Narramore.

클라이드 나라모어가 선교사 멤버케어에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문은 정신과 전문의가 집필한 최초의 선교사 관련 도서였다. 1969년 Zondervan은 “기독교 심리학 시리즈(Christian Psychology Series)”에서 그의 최초의 간략한 저서인 <선교사가 직면하는 문제(Problems Missionaries Face)>를 발표하였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연구 보고서였다. 그는 책의 서두를 자신과 조카인 브루스 나라모어가 멕시코 씨티를 떠났던 상황의 서술로 시작하였다. 그는 “보시다시피, 우리는 몇 개의 해외 선교지로부터 귀국하는 국제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브라질에서만 우리는 40개 넘는 선교단체 선교사와 교체하였다. 그가 자신의 연구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1968년 푸에르토 리코에서 35인의 선교사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현재에도 적절하게 사용된다. 브루스 나라모어와 나라모어 크리스천재단은 현재에도 선교사 관리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당시에 사용 가능한 목회자케어에 추가함으로써, 선교사 멤버케어가 강화된 시기였다. 달성된 성과를 여기에 10년 단위로 소개한다. 다음 목록이 완전한 목록을 의도한 것은 아니고, 각 10년 중에 발생한 성과의 예시이다. 선교단체 이름과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일부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링크의 대부분은 관련 장제목에서 질문에 대해 답할 때 이후의 장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1950년대 1950s

- Mission Training International, 1953 (now Missionary Internship)
<http://www.mti.org/>
- Narramore Christian Foundation, 1958, <http://www.ncfliving.org/>

1960년대 1960s

- Link Care center, 1965, <http://www.linkcare.org/>
- Some agencies added children’s staff and counseling staff
- Book: *Problems Missionaries Face*, 1969

1970년대 1970s

- Marble Retreat, 1975, <http://www.marbleretreat.org/>

1980년대 1980s

- Conference on Mental Health and Missions, 1980, <http://www.mti.org/programs/MHM>
- ICMK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Missionary Kids). ICMK—Manila, 1984; Quito, 1987; Nairobi, 1989

- Barnabas International, 1986. <http://www.barnabas.org/>
- Peter's Wife, 1986, <http://pw.mikediane.com/>
- Interaction International <http://www.interactionintl.org/home.asp>
- Mu Kappa, 1988, <http://www.mukappa.org/>
- MK-CART/CORE, 1987 (15 years, 3 major studies)
- Tumaini Counselling Centre, 1980s, <http://tumainicounselling.net/>
- Books: (1) *Cross Cultural Reentry: A Book of Readings*, 1986. (2) *Overcoming Missionary Stress*, 1987. (3) *Helping Missionaries Grow: Readings in Mental Health and Missions*, 1988.

1990 년대 1990s

- Heartstream Resources, 1992, <http://www.heartstreamresources.org/>
- Share Education Services, 1994, <http://www.shareeducation.org/>
- Godspeed Services, 1995, <http://www.godspeedservices.org/>
- ReMAP (Reducing Missionary Attrition Project) 1995-1997
- Women of the Harvest, 1997 which became Thrive, 2013, <http://thriveministry.org/>
- Missionary Care, 1998, <http://www.missionarycare.com/>
- Member Care Radio, 1998, <http://www.membercareradio.com/>
- A Quiet Place, 1998 <http://www.aqpretreat.org/>
- Quiet Place Ministries, 1998, <http://www.quietplaceministries.org/>
- Missionary Care Ministry, 1999, <http://www.missionarycareministry.org/>
- ELIM Retreats, 1999, <http://www.elimretreats.org/>
- Books: (1) *Re-Entry: Making the Transition From Missions to Life at Home*, 1992. (2).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1992. (3) *Psychology of Missionary Adjustment*, 1995. (4) *Too Valuable to Lose: Exploring the Causes and Cures of Missionary Attrition*, 1997. (5) *The Third Culture Kid Experience*, 1999.

2000 년대 2000s

- Alongside, 2000, <http://www.alongsidecares.net/>
- Mobile Member Care Team, 2000, <http://www.mmct.org/>
- The Well, 2000, <https://www.thewellcm.com/>
- ReMAP II (Reducing Missionary Attrition Project Two) 2002-2007, http://www.worldevangelicals.org/resources/rfiles/res3_96_link_1292358945.pdf
- Missionary Resources Connection, 2001, <http://www.mresourcesconnection.org/>
- E-Books appeared on Missionarycare.com, 2003
- Doctor of Ministry in Member Care, 2003, <http://www.ciu.edu/academic-programs/doctor-ministry-program>
- Cornerstone Counseling foundation, 2004, <http://www.cornerstonecounseling.in.th/index.html>
- Cross-Cultural Workers, 2005, <http://www.crossculturalworkers.com/>
- Child Safety and Protection Network, 2006, <http://childsafetyprotectionnetwork.org/>
- Doctor of Ministry in Member Care, 2007, <http://www.ciu.edu/academic-programs/doctor-ministry-program>

- [Global Member Care Network, 2007, http://www.globalmembercare.com/](http://www.globalmembercare.com/)
- [Member Caravan, 2008, 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home](https://sites.google.com/site/membercaravan/home)
- [Member Care Associates, 2009. http://membercareassociates.org/](http://membercareassociates.org/)
- Books: (1) *Fitted Pieces: A Guide for Parents Educating Children Overseas*, 2001. (2) *Doing Member Care Well: Perspectives and Practices from Around the World*, 2002. (3) *Enhancing Missionary Vitality: Mental Health Professions Serving Global Mission*, 2002. (4) *The Family in Mission: Understanding and Caring for Those Who Serve*, 2004. (5) *Worth Keeping: Global Perspectives on Best Practice in Missionary Retention*, 2007. (6) *Parents of Missionaries: How to Thrive and stay Connected When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serve Cross-Culturally*, 2008. (7) *Global Member Care Volume One: The Pearls and Perils of Good Practice*, 2011.

본 장을 훑어 보기만 해도 1980 년까지 선교사 케어에 진전된 사항이 미미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요구한 필요에 점차 부응해 왔다.

독자에게: 여러분이 본 장에서의 질문에 더 잘 답변할 수 있는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ron@missionarycare.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내용에서는 3 가지를 언급해 주십시오: (1)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는지 (2) 사용 가능한 관련 웹사이트로의 링크와 (3) 성경시대 이래로 선교사 케어가 어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더 잘 답할수 있는지, 저는 이러한 제안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본서를 갱신하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